

젊은 층 대화에 나타나는 「なんか」의 사용양상*

-여대생 친구 간 대화를 중심으로-

이은미**

〈 Abstract 〉

The use of 'Nanka' in conversations between young generations: Focusing on conversations between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this study, the use of 'nanka' as a discourse marker in the conversation between friends of university students in Japan was investigated.

Through this study, it was empirically revealed that most of 'nanka' in the conversation between friends of university students were used as a discourse marker. Furthermore, the functions of 'nanka' as a discourse marker were classified into 'discourse development' and 'mitigation'. In addition, 'discourse development' was subdivided into 'topic maintenance', 'topic switching' and 'topic development', and 'mitigation' was subdivided into 'information demand', 'expression of opinion' and 'others (surplus)'. Each use of those showed a different tendency from others in terms of the position 'nanka' appeared. 'Nanka' as a discourse marker is not a requisite element either grammatically or semantically in a discourse. Moreover, it is not concerned with the utterance contents at all. However, it may be said that it functions as a language strategy to maintain smooth communication while showing the consideration to a conversation partner as 'nanka' softens the tone of the utterance contents by showing the hesitation.

Field: Pragmatics

Keywords: 'Nanka', Discourse marker, Smooth communication, Conversations between friends,
Language strategy

1. 들어가며

최근 일본의 매스미디어나 일본인들의 일상 대화를 관찰해 보면, 중고생, 대학생 등의 젊은 층 사이에서 「彼女についてなんか言ったの。」와 같은 부정칭대명사(否定称代名詞)나 「私なんかできないよ。」와 같은 부조사로서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なんか」보다 「なんか、うん、美術の先生とかに言わせたらー、なんか、これから、はって、なんか、発展途上のイメージみたいな。」¹⁾와 같이 실질적인 사전적 의미를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A8019606)

** 명지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화용론·담화분석

1)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 나타난 「なんか」의 실제 사용 예이다.

갖지 않는 「なんか」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なんか」는 다양한 선행연구(内田 2001, メイナード 2001, 福原 2005 등)에서 대화에서 내용상으로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지만 대화의 전개상 발화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담화표지(discourse marker²⁾)라고 지적되어 왔다. 최근에는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なんか」를 포함하여 중고생, 대학생 등의 젊은 층 언어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화용론적 관점에서 「とか」, 「みたいな」, 「じゃないですか」 등 다양한 젊은 층 언어의 사용실태나 인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佐竹1995, 天野2001, 이수현2006 등). 그러나 실제 대화를 분석하여 젊은 층 언어의 사용 양상을 실증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초반의 여자 대학생 친한 친구 간 대화를 자료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젊은 층 언어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なんか」³⁾의 담화표지(discourse marker)로서의 사용양상을 정성적 및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 20대 여자 대학생 친구 간 대화를 분석 자료로 하였다. 베이스가 되는 피험자에게 동성의 친한 친구와 편안한 장소에서 20분 정도 대화하도록 의뢰하였다(5대화). 화제는 특별히 제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각각의 대화 종료 후, 녹음되는 것에 대한 의식 등에 대해서 폴로 업 양케이트를 실시하여, 대화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녹음한 데이터는 「개정판 : 기본적인 문자화의 원칙(Basic Transcription System for Japanese : BTSJ)」(宇佐美 2003)에 따라, 전체 대화를 문자화하였다(합계 : 117분 35초⁴⁾). 그리고 문자화한 데이터를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분석항목별로 코딩하였다. 또한 「평정시간 신뢰성 계수(Cohen's Kappa)」를 측정하여, 분석 항목의 코딩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⁵⁾.

2.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담화표지로 사용된 「なんか」의 사용양상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대화자료에 나타난 모든 「なんか⁶⁾」를 추출하고 그 중에서 담화표지로 사용된 「なんか⁷⁾」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なんか」

2) A discourse marker is a word or phrase that is relatively syntax-independent and does not change the truth conditional meaning of the sentence, and has a somewhat empty meaning(Carol Lynn, Moder & Aida Martinovic-Zic 2004: 117)

3) 20대와 30대 젊은 층 대화에 나타난 헛지의 사용양상을 조사한 졸고(2008, 2014)에 따르면 20대와 30대 모두 「なんか」의 사용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대화 시간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분 4초, 23분 1초, 23분 44초, 27분 13초, 23분 33초(총117분 35초)

5) 「평정시간 신뢰성 계수(Cohen's Kappa)」는 단순 일치율에서 우연의 일치율을 빼고 계산한 것으로 $k=1$ 은 100% 일치하는 것을 나타낸다. 기능코딩과 같이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는 분류에서는 $k \geq 0.70$ 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본 연구에서 「なんか」의 기능분류 판단에 대한 평정시간 신뢰성 계수(Cohen's Kappa)는 $k=0.776$ 으로 $k \geq 0.70$ 이었다.

6) F8: え、郵便局だとー(うん)、なんか、ゆ、デメリットはなににかあんの? 와 같이 「なんか」가 사용된 예가 2건 있었는데, 모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7) 구어표현인 「なんか」는 부정칭대명사, 부조사, 부사의 3가지 용법을 가지고 있는데, 林(2006)에 따르면 담화표

의 사용양상을 담화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실제 대화 자료에 나타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なんか」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1〉

F4⁸⁾: 部屋とかで、こう、なごむとさー(うん)、なんか、"じゃあ、真面目な話しよっか"みたいな(〈笑い〉)⁹⁾、"「F9あだ名」ちゃん"みたいな。

F3: 私だけ?。

F3: 展覧会どうだったの?、最終日は。

F4: 展覧会はね、なんか、結構いっぱい人が来てくれ(てー){},,

F3: 〈あー〉{}, そうなの。

F4: 毎日、こう、おいしいクッキーとかケーキとか(〈笑い〉)食べちゃって、あたし(〈笑い〉)ながら。

다음 〈예2〉와 같이 명사 뒤에 붙어 부조사로 사용되거나 〈예3〉과 같이 부정칭대명사로 사용되어 어휘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なんか」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2〉

F10: 〈っていうか〉{}, あたしなんか、15分ぐらいで書き終わったの。

〈예3〉

F6: 終わった後なんか言ってた?。

F5: え、なんかー、すごい教材とかメモしててー、"何使ってるんですか?"とか言って。

3. 결과 및 고찰

3.1 전체 「なんか」의 용법

여대생 친구 간 대화에 나타난 전체 「なんか」의 용법의 결과는 다음 〈표1〉과 같다.

지로 사용되는 「なんか」는 부사로서의 용법이 담화표지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林(2006)는 「なんか」의 위치와 피수식부의 위치와의 거리라는 관점에서 수식어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부사적용법이 되고, 수식어와의 거리가 멀수록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수식어와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발화내용과 관계가 깊은 어휘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고, 거리가 멀다는 것은 발화내용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어떤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하는 담화표지로서 기능한다는 것으로 부사로서의 「なんか」가 담화표지로서의 「なんか」로 표백화(漂白化)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林(2006)의 주장을 바탕으로 부사적인 용법으로 사용되는 「なんか」를 담화표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8) F는 Freund의 약자이며, 알파벳 뒤의 숫자는 피험자를 특정하기 위한 번호를 나타낸다.

9) 대화문에 사용된 문자화기호에 대해서는 본고의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1〉 「なんか」의 용법

	빈도(%)
부정칭대명사	18(4.7)
부조사	2(0.5)
답화표지	364(98.9)
합계	384(100.0)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여대생 친구 간 대화에 보이는 「なんか」는 거의 대부분이 답화표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なんか」가 부정칭대명사로 사용된 경우가 18회였는데, 분석대상은 아니었지만 「なにか」의 형태로 사용된 예도 2건 있었다. 친구 간 대화인 만큼 「なにか」보다는 상대적으로 격식성의 정도가 약하고 친근감이 느껴지는 「なんか」가 선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답화표지로서의 「なんか」의 사용양상

이하에서는 여대생 친구 간 대화에서 「なんか」가 답화표지로 사용된 경우, 「なんか」가 사용된 발화문의 양상 및 「なんか」의 기능별 사용양상을 살펴보았다.

3.2.1 「なんか」가 사용된 발화문의 양상

다음 〈표2〉와 〈표3〉은 「なんか」가 답화표지로 사용된 경우, 전체 발화문 수 대비 「なんか」가 사용된 발화문 비율 및 1발화문 당 「なんか」의 사용빈도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2〉 「なんか」가 사용된 발화문 비율

「なんか」가 사용된 발화문 비율	9.84
「なんか」가 사용된 발화문 수	299
총 발화문 수	3,038

〈표3〉 1발화문 당 「なんか」의 사용 빈도

1발화문 당 「なんか」의 사용빈도	0.12
「なんか」 사용 빈도	364
총 발화문 수	3,038

〈표2〉의 총발화문 수에 차지하는 「なんか」의 답화표지로 사용된 발화문 수의 비율을 보면 약 9.84로 약 10개의 발화문 중 1개의 발화문에서 「なんか」의 답화표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표3〉의 1발화문 당 사용된 「なんか」의 빈도를 보면 1발화문 당 약 0.12회의 빈도로 「なんか」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2 「なんか」의 기능

본 연구에서는 실제 대화에서 사용되고 있는 「なんか」의 답화표지로서의 기능을 크게 '답화전개기능'과 '발화완화기능'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답화전개기능'은 ①발화권유지, ②화제전환, ③화제전개·구체화의 경우로 세분화하였으며 '발화완화기능'은 ①정보·확인요구, ②태도표명, ③기타(인여)의 경우로 세분화

하였다¹⁰⁾.

(1)담화전개기능

①발화권유지:

발화 중 다음 말을 생각하거나 시간적 여유를 벌기 위해 「なんか」를 사용하여 발화권을 유지하는 경우이다.

〈예4〉

F8: え、ね、どうやってお金来るの?〈笑い〉。

F7: 意味が分かんないの、私も(〈笑い〉)。

F7:ほんとに分かんない。

F8: え、じゃらじゃら、どうやって出てくるのかが知りたいよね〈若干笑い気味に〉。

F7: くーん}{}

F8: 〈どこで〉}{}

F7: え、でも、どこの銀行もやってるらしくて。

F8: え、それって、なんか¹¹⁾、こう、こう、本買うみたいにさ(うん)、なんか、うーんって下ろしてきてさ、これ、こういう、こうなんですけどって言ってもらえるとか?、窓口で。

②화제전환:

새로운 화제로 발화권을 획득하거나 발화 중 새로운 화제로 전환할 때 「なんか」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예5〉

F1: 笑うのは大事なんだよ。

F2: 〈思った、思った〉}{}

F1: 〈笑うと元気〉}{}

F2: うん。

F2: 絶対それ大切だよ。

F1: まー、あたしはその辺はね、いろいろとこう計算してるんですよ〈軽い笑い〉。

F2: がんばってるのか。[この間、F01は軽く笑う]

F2: 無理してるのか〈若干笑い気味に〉。

F1: 〈笑い〉うそ(2人で大笑い)。

F2: なんだそれ〈笑いながら〉。

F1: 全然ウソ。[この間、F02は笑っている]

F1: 全然ウソ。

10) 三牧(1993), メイナード(1997), 福原(2005), 内田らら(2001), 이수현(2006), 두영임(2012)등을 참고하였다.

11) 〈예4〉의 경우 「なんか」와 함께 「こう」 표현이 사용되어 다음발화까지의 연결역할을 하고 있다. 「なんか」가 발화권유지의 기능을 수행할 때 「こう」나 「あの」 등의 표현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이를 통하여 대화상대에게는 자신이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강하게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1: そうそうそうそう。

F1: なんかねー、なんだろう、合宿はー、ブランコとか、乗ったよね、一年の夏んときに。

F2: うん。

F1: <外のブランコ>{ }。

F2: <あそこよかった>{ }よね。

③화제전개·구체화:

화제를 계속 이어가거나 화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なんか」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예6>

F6: 私、この前さー、Tシャツにジーパンで朝起きたらいたっていったじゃん<笑い>。

F6:すごい、第2段があつてねー(うん)、なんかね、歯を磨いてること忘れちゃって、違うこと始めちゃったの。

F5: え[↑]、こうして?。

②발화완화기능

①정보·확인요구:

화자가 상대의 발화에 대해 의문을 느끼거나 질문사항이 생겨 정보를 요구하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바랄 때 「なんか」를 사용하여 단정을 피함으로써 발화내용이 완화되는 경우이다.

<예7>

F9 : なんかさ、「人名2」って結婚してんでしょ?。

F10: え、そうなの?。[驚いたように]。

F9 : してないのかな?。

F10: えー、なんか、み、えー[↑]、/少し間/未婚ぼくない?<笑い>。

F9 : え、でも、結構年だしねー。

F10: あ————。

②태도표명:

어떤 사물, 사항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를 표명하거나 평가를 할 때 「なんか」를 사용하여 단정을 피함으로써 발화내용이 완화되는 경우이다.

<예8>

F3: こうねー、ちゃんときれいに書きたいのに(うん)、書けないときとかあ、あんのよ、たまに。

F4: うん。

F3: そう。

F4: でも、こう、ゆったりさ、こう、割と心がリラックスしてるときとかはー(うん)、うん、す、多少、なんか 違うような気が、するんだけど=。

F3: =履歴書書くときとか??。

F4: うんうん。

③기타(잉여):

상기의 기능에 해당되지 않고 잉여적으로 「なんか」를 사용함으로써 발화내용(표현자체)이 완화되는 경우이다.

〈예9〉

F9 : でー、もうその人はー、なんか学生時代からもう「大学名1」の人とずーっと、なんかいろん
んな、なんか「学科名3」と付き合った(りー){},,〈笑いながら〉

F10: 〈ほー〉{}、〈すーごいね〉{}。

F9 : 〈「学科名4」と付き合った〉{}りしてー、"もう、「大学名1」の男の子はいいわよ"とか
言っ、"あなたも早く見つけなさい"とかって〈笑いながら〉。

3.2.2 담화표지로서의 「なんか」의 기능별 사용양상

여대생 친구 간 대화에 나타난 담화표지로서의 「なんか」의 기능별 사용양상의 결과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담화표지로서의 「なんか」의 기능별 사용양상

기능		빈도(%)	
담화전개기능	발화권유지	35(9.6)	204(56.0)
	화제전환	58(15.9)	
	화제전개·구체화	111(30.5)	
발화완화기능	정보·확인요구	28(7.7)	160(44.0)
	태도표명	85(23.4)	
	기타(잉여)	47(12.9)	
합계		364(100.0)	

담화표지로 사용된 「なんか」는 ‘발화완화기능’보다 ‘담화전개기능’의 사용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담화전개기능’의 경우, ‘화제전개·구체화’의 장면에서 「なんか」의 사용비율이 가장 높으며, ‘발화완화기능’의 경우에는 ‘태도표명’을 하는 장면에서 「なんか」의 사용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5〉는 「なんか」의 출현위치를 문두¹²⁾, 문중, 문말로 나누어 각 출현위치에 따른 기능별 사용양상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12) 「そう、なんか」, 「ん、なんか」, 「あ、なんか」 등과 같이 「なんか」의 앞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간투사가 사용된 경우도 문두로 분류하였다.

〈표5〉 「なんか」의 출현 위치별 기능의 사용양상

기능			빈도(%)		
문두	담화전개기능	발화권유지	5(1.4)	112(30.8)	149(40.9)
		화제전환	54(14.8)		
		화제전개·구체화	53(14.6)		
	발화완화기능	정보·확인요구	12(3.3)	37(10.1)	
		태도표명	23(6.3)		
		기타(잉여)	2(0.5)		
문중	담화전개기능	발화권유지	30(8.2)	92(25.3)	201(55.2)
		화제전환	4(1.1)		
		화제전개·구체화	58(15.9)		
	발화완화기능	정보·확인요구	16(4.4)	109(29.9)	
		태도표명	55(15.1)		
		기타(잉여)	38(10.4)		
문말	담화전개기능	발화권유지	0(0.0)	0(0.0)	14(3.8)
		화제전환	0(0.0)		
		화제전개·구체화	0(0.0)		
	발화완화기능	정보·확인요구	0(0.0)	14(3.8)	
		태도표명	7(1.9)		
		기타(잉여)	7(1.9)		
합계			364(100.0)		

담화표지로서의 「なんか」는 발화 중 문중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문두에 사용될 경우 ‘발화완화기능’보다 ‘담화전개기능’의 사용비율이 더 높지만, 문중에 사용될 경우에는 ‘담화전개기능’보다 ‘발화완화기능’의 사용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각 기능과 출현위치와의 관계를 보면 문두에서는 ‘화제전환’과 ‘화제전개·구체화’장면에서 상대적으로 사용비율이 높고, 문중의 경우에는 ‘화제전개·구체화’와 ‘태도표명’장면에서 상대적으로 사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문말에서는 「なんか」가 ‘태도표명’과 ‘기타(잉여)’장면에서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なんか」는 출현위치에 따라 각각의 사용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なんか」는 담화 속에서 문법적으로 혹은 의미적으로 필수요소가 아니며 발화내용과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많은 경우 발화내용의 단정을 피하고 주저하는 심적태도를 나타내어 궁극적으로는 발화자체를 완회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상대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면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하나의 언어전략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 대화 예는 「なんか」가 문두에서 ‘화제전환’시에 사용된 경우이다.

〈예10〉

F10: 行っちゃった(2人笑い)。

F9: なんか,

F10: うん?。

F9: あれだよね(うん)、周りがこう、いっぱい、音とかしてる方がさー。

F10: あー、しーんとしてるよりはね。

〈예10〉은 대화녹음 의뢰자가 F9와 F10의 대화 장소를 나간 직후의 대화장면으로 F10이 대화녹음 의뢰자가 간 것을 이야기하자, F9가 이어서 새로운 화제를 제시할 때 「なんか」를 사용한 예이다. 갑자기 다른 화제를 제시하지 않고 문두에서 「なんか」를 사용함으로써 F9가 발화권을 획득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겠다는 신호를 대화상대에게 보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10〉과 같이 이전까지의 발화와는 상관없는 다른 내용을 화제로 삼아 대화를 전개할 때 문두에서 「なんか」를 먼저 사용하여 화제를 전환하는 예가 많이 보인다. 예고도 없이 다른 화제를 갑작스럽게 제시했을 때 상대방이 당황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두에서 「なんか」를 사용함으로써 화제전환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하나의 언어전략으로 기능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 대화 예는 「なんか」가 문중에서 ‘화제전개·구체화’시에 사용된 경우이다.

〈예11〉

F9 : え、じゃあ、え[↑]、向こうが一目ぼれってこと?。

F9 : え、目星、前から。

F10: めぼ<し>{<>}。

F9 : <めぼ>{<>}しいからつけてた。

F10: うん、そりゃ、そうだろう、ねー。

F9 : へー。

F10: しかも、それは、なんか昨日ね、図書館に行ってさー、最近よくユリイカとかNNN(うんうん)NNNN[人名7]特集とかあるじゃん。

F10:あれこうパラパラって見てたらー、「人名7」とー、奥さんの対談とかがあつてー。[->]

F9 : え、じゃあ奥さんの写真も載ってた?。

F10: 載っててー。

F10: なんかも奥さんもね、ほんと、なんか端正な、こ知的な、感じの人って感じでー。[->]

〈예11〉은 F9와 F10이 서로가 잘 아는 人名7가 같은 대학의 동기에게 한 눈에 반해서 결혼한 것을 화제로 삼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으로 F10이 전날 본 잡지에서 본 人名7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예로 들면서 이야기할 때 「なんか」를 사용한 예이다. 이러한 「なんか」는 대화상대에게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 대화 예는 「なんか」가 문말에서 ‘태도표명’시에 사용된 경우이다.

〈예12〉

F3: でー、あたしは、ねえ、あのホットペッパー見て(うんうん)、で、結構小さくってー、内装も落ち着いてるとこ??、で、そういうとこ、も、なんか、ぱっと見が美容院ほくないとこ(うんうん)選んで、行ったの。

F3:したら、ほんとにさ、普通の飲食店みたいな感じ<で>{<>}。

F4:<えー>{<>}、微妙じゃない、それ<笑いながら>。

- F4:〈え、でも、どゆこと?、どゆこと?〉{<}.
 F3:〈やー、中は美容院〉{>}なんだけど=。
 F4:=普通の飲食店?。
 F3:ぼかったのよ、ぱっと見は。
 F3:そう。
 F3:だか、ビルの2階にあってさ(あー)、で、あのねー、内装がー、多分、「F4あだ名」
 ちゃんああいうの好きだと思うんだよね。
 F4:あー。
 F3:なんかねー、土壁なってるの。
 F4:へー。
 F3:でも、面白いんだよ、なんか〈軽く笑いながら〉。

〈예12〉는 F3이 F4에게 본인이 갔던 독특한 미용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으로 F4가 화제의 미용실에 대해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자 F3이 미용실이 재미있다는 본인의 생각을 F4에게 말할 때 문말에 「なんか」를 사용한 예이다. 이 경우 F3이 「でも、面白いんだよ」라고 말한 후, 발화내용이 단정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문말에 「なんか」를 덧붙여 사용함으로써 발화를 완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5. 나오며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 나타난 「なんか」가 담화표지로 사용될 경우의 담화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서 사용되는 「なんか」의 대부분이 담화표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으며, 담화표지로서의 「なんか」의 기능은 크게 ‘담화전개기능’과 ‘발화완화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각 기능은 발화권유지, 화제전환, 화제전개·구체화의 경우와 정보·확인요구, 태도 표명, 기타(잉여)의 경우로 세분화되었는데, 「なんか」의 출현위치에 따라 각각의 사용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なんか」는 담화 속에서 문법적으로 혹은 의미적으로 필수요소가 아니며 발화내용과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문두에서 「なんか」를 사용함으로써 화제전환을 자연스럽게 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거나 질문 등을 할 때 발화내용의 단정을 피하고 주저하는 심적태도를 나타내어 발화자체를 완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상대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면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전략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 한정하여 「なんか」의 사용양상을 살펴보았는데, 향후 대학생 첫 만남 대화를 분석하여 「なんか」의 사용과 친소요인과의 관계도 고찰함으로써 담화표지로서의 「なんか」의 기능 및 사용양상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규명해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두영임(2012) 『談話標識としての『なんか』の機能—前置き表現を中心に—』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현(2006) 「若者ことばにおける『なんか』について」 『日本文化学報』 31 한국일본문화학회 pp.62-72
- 이은미(2008) 「日韓の自然会話に見られるヘッジ」 『日本研究』 36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pp.259-278
- _____ (2014) 「한일 양국의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 나타나는 헷지의 사용양상」 『日本語学研究』 42 한국일본어학회 pp.207-223
- 天野みどり(2001) 「若者ことば-銅メダルとかがとった」 『東山南北-イメージと言語』 和光大学総合文化研究所 pp.100-107
- 宇佐美まゆみ(2003) 「改訂版:基本的な文字化の原則(Basic Transcription System for Japanese:BT SJ)」 『多文化共生社会における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教育のための基礎的研究』 平成13-14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2)研究成果報告書 pp.4-21
- 内田らら(2001) 「会話に見られる『なんか』と文法化:『前置き表現』の『なんか』は単なる口ぐせか?」 『東京工芸大学工学部紀要』 24-2 pp.1-9
- 佐竹秀雄(1995) 「若者ことばとレトリック」 『日本語学』 14-11 明治書院 pp.53-60
- 泉子・K・メイナード(1997) 『談話分析の可能性』 くろしお出版
- 福原裕一(2005) 「ディスコース・表現『なんか』におけるポライトネス機能について-若者言葉をを中心に-」 『社会言語科学会第15回大会発表論文集』 社会言語科学会 pp.12-15
- 三牧陽子(1993) 「談話の展開標識としての待遇レベル・シフト」 『大阪教育大学紀要』 42-1大阪教育大学 pp.39-51
- Carol Lynn, Moder & Aida Martinovic-Zic (2004). *Discourse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부록>

대화 예에 사용한 문자화 기호

。	1발화문의 마지막에 붙인다.
”	발화문 도중에 상대방의 발화가 들어간 경우, 앞의 발화문이 끝나지 않았음을 표시하기 위해 붙이며, 개행해서 상대방의 발화를 입력한다.
、	① 일본어 표기 관례대로 쉼표를 붙인다. ② 발화와 발화 사이에 짧은 간격이 있는 경우에 붙인다.
?	의문문에 붙인다. 의문 종조사가 붙은 질문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미를 올리는 등 의문의 기능을 가지는 발화는 그 부분이 발화문 끝일 경우 「?。」를 붙인다. 도치의문의 기능을 가지는 것은 발화문 중간에 「?,。」을 붙인다.
” ”	발화 중에 화자 이외의 사람의 발화가 직접 인용된 경우, 그 인용된 부분을 ” ” 안에 기입한다.
< > { } < > { }	동시에 발화된 부분은 < > 안에 중복된 부분의 양쪽을 다 넣고, 중복된 발화에는 < > 의 뒤에 { } 를 붙이고 그 라인의 마지막에 마침표 「。」 또는 쉼표 두 개 「,,」 를 붙인다. 또, 중복한 발화에는 < > 뒤에 { } 를 붙인다.
[]	문맥 정보 해당 발화가 행해진 상황을 가능한 한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음성상의 특징(악센트, 음의 높이, 음의 대소, 속도 등) 중에서 특기할 필요가 있는 것을 해당 라인의 제일 뒷부분에 표기한다.
()	짧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맞장구」는 () 안에 넣어 상대방의 발화 중 가장 근접한 부분에 표기한다.
< >	웃으면서 발화한 것이나 웃음 등은 < > 안에 표기하고, <웃으면서>, <돌아서 웃음>과 같이 설명을 부가한다.
<< >>	상대방의 발화 도중에 상대방 발화와 중복되어 웃는 경우에는 짧은 맞장구로 취급하여 (<웃음>)으로 표기한다.
「 」	문자화 자료를 공개할 때, 고유 명사 등, 대화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단어를 표기할 때 사용한다.

〈 要 旨 〉

若者の会話における「なんか」の使用様相
-女子大学生の友達同士の会話を中心に-

本研究では大学生の友達同士の会話における「なんか」のディスコース・マーカ―としての機能についてその使用様相を分析した。本研究を通して大学生の友達同士の会話における「なんか」のほとんどがディスコース・マーカ―として使われていることが実証的に検証された。またディスコース・マーカ―としての「なんか」の機能は大きく「談話展開機能」と「発話緩和機能」とに分類できた。それぞれの機能はさらに「発話権維持」、「話題転換」、「話題展開・具体化」と「情報・確認要求」、「態度表明」、「その他(剰余)」に細分化できたが、「なんか」の出現位置によってそれぞれの使用様相には差があることが分かった。ディスコース・マーカ―として使われる「なんか」は談話の中で文法的にも意味的にも必要要素ではなく、さらに発話内容とも直接的には関わっていない。しかし、「なんか」は、多くの場合、発話内容の断定の避け、躊躇の心的態度を示すことで、発話内容を和らげていることから会話相手への配慮を示しながら円滑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維持していくための一つの言語ストラテジーとして機能していると言えよう。

論文分野: 語用論

キーワード: なんか、ディスコース・マーカ―、円滑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友達同士の会話、言語ストラテジー

■ 이은미 (李恩美)

명지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eunmijapan@hanmail.net

- 投稿日 : 2015년 3월 20일
- 審査開始 : 2015년 4월 13일
- 審査完了 : 2015년 5월 3일
- 掲載確定 : 2015년 5월 18일